

##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 -개혁사상을 중심으로

윤 기 봉  
(대전대학교)

---

### 〈요약〉

---

종교는 보편적 가치로서 구원의 이상을 추구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역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수주의적 가치도 종교 안에 함유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기독교의 윤리가 그 본래의 창조적 성취욕구와 생산성 및 능률 향상을 그 기저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즉, 종교정신이 시간적으로 앞선 사회의 폐쇄성을 혁파하고 시민혁명의 실질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조 말엽의 신종교의 태동은 기존 사회질서가 쇠락하는 해체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종교의 절대세계에 투사시킴으로써 구조적 모순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세속적 종교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조선조 말엽의 신종교 발생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자체의 사상체계에 현실사회에 대한 개혁적 의식이 함의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는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인 증산 강일순의 사상체계를 개관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조선조 말엽의 시대상황하에서 개혁사상이 대두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아울러 증산의 사상체계 안에서 개혁의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는 사상적 요소로서 개혁사상을 살펴본 후 개혁사상을 통하여 증산이 지향하고자 했던 종교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논의를 통하여 근대의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의미 내지는 역할을 규명해보려 한다.

---

### I.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이라는 주제 하에 본인에게 주어진 제목

은 “대순진리회의 개혁사상”이었다. 따라서 본 발표는 대순진리회의 소의 경전인 전경(典經)을 중심으로 강증산 상제(이하 증산)의 종교사상을 개관하면서 다음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조선조 말엽의 시대상황하에서 개혁사상이 대두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증산의 사상체계 안에서 개혁의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는 사상적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개혁사상을 통하여 증산이 지향하고자 했던 종교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논의를 통하여 근대의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의미 내지는 역할을 규명해보려 한다.

## II.

종교란 심리적 측면에서 위안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삶은 속성상 불확실하고 유동적일 수 뿐이 없는 한계성을 띄고 있다. 이때 종교는 인간이 경험할 수 뿐이 없는 위와 같은 필연적인 경험들을 수용케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막스 베버는 기독교의 윤리가 그 본래의 창조적 성취욕구와 생산성 및 능률 향상을 그 기저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즉, 종교정신이 시간적으로 앞선 사회의 폐쇄성을 혁파하고 시민혁명의 실질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한국종교협의회 편: 65).

이것은 종교가 사회변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모순된 구질서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정당화시키면서 개인들을 동기화 시키고 연대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노길명: 45). 따라서 조선조 말엽의 신종교의 태동은 기존 사회질서가 쇠락하는 해체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종교의 절대세계에 투사시킴으로써 구조적 모순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세

속적 종교현상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것은 곧 신종교 발생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자체의 사상체계에 현실사회에 대한 개혁적 의식이 함의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전경 공사 1장 3절).

이렇게 볼때 인간의 희망은 현실세계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즉, 조선후기의 현실은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의 고착된 갈등관계 구조뿐만 아니라 척사와 개방의 갈등 및 그에 상응하는 문화접변현상, 새로운 가치관의 이입, 사상적 종교적 질서의 혼란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위기 의식이 고조되어 심각한 아노미 현상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 났도다” (전경교법 3장 23절).

사상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정학(正學)이 바로 주자학이라는 일존주의(一尊主義)체계가 해체되면서 근저에 「華」와 「夷」를 준별하는 명분론적 세계관의 지양을 수용하고 修己 = 道學편중에 대한 治人=經世, 正德 편중에 대한 利用과 原生의 강조, 형이상 = 道에서 탈피하여 형이하=器의 분리에 의한 자립화 내지는 그것을 논거로 하는 西器 및 西法의 수용(강재언: 7)이 실학 개화사상의 조류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안티·이데올로기로서의 동학의 출현도 그 궤적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학운동은 조선조의 보수적 체제유학사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신념체계를 제시하고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항할 수 있는 신앙단체를 형성하며 양이(洋夷)와 특히 일본에 대항해서 보국안민(輔國安民)하고자 하는 사상적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윤이훈: 105)따라서 사상적 동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는 19세기 이후 西勢東漸의 민족적 위협속에서

국가보위 의식의 팽배와 국난극복의 민족 구원 사상, 둘째는 서학·천주교의 위협적 도전을 민족적 주체, 자립의식으로 응전하려는 자세의 확실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째는 18세기 이후 변질된 조선왕조 양반 사회의 제반 봉건적 정치 상황의 모순, 네째는 국가에의 남세제도인 三政의 문란, 다섯째는 전통적인 儒敎, 佛敎, 道敎등의 종교와 외래사상의 여러 폐단에 따라 지도 이념의 난맥 그리고 퇴색과 민중 향방의 혼돈, 여섯째는 實學 思想에서의 현실비판과 개혁사상 및 변혁 사상에 영향받은 피지배민중의 수준 높은 의식의 향상과 자각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조선 후기 1801년에 공노비제를 폐지하면서 이모작을 통한 생산량 확보로 서민지주의 등장을 가능케 하여 신분적 예측성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과 삼정의 문란 그로 인한 민란의 발생은 대내외적으로 조선의 혼란상을 가중시켜 동학혁명을 촉발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증산은 관념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고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전경 교법 3장 6절)

이러한 조선후기의 시대적 한계 상황의 총체적 진단을 증산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병에 큰 병이 있고 병에 작은 병이 있다. 큰 병에 약이 없고 작은 병에 약이 있다. 그러나 큰 병의 약은 안심 안신(安心安身)이고 작은 병의 약은 사물탕 팔십첩이다. … 큰병은 무도(無道)에서 생기고 작은 병도 무도에서 생긴다. 그러니 도를 모은즉 큰 병도 약 쓰지 않고 스스로 나으며 작은 병도 약 쓰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효험이 있다… 아버지를 잊는 것이 무도이고 군주를 잊는 것이 또한 무도이고 스승을 잊는 것도 무도이다. …세상에 충이 없고 효가 없고 열(烈)이 없으니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전경 행록 52장 38절).

이러한 증산의 天下皆病觀은 현실의 한계상황을 중층적구조로 해석하면서 ‘無道’에서 비롯된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 극복방법에 대한 해법이 증산의 사상체계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III.

종교는 보편적 가치로서 구원의 이상을 추구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수주의적 가치도 종교 안에 함유하고 있다(한국종교협의회 편: 147).

조선후기 사회 상황에 대한 증산의 인식은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으로 풀이된다.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전경 교법 3장 34절)

증산은 선천시대의 법리적 상극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고 모든 인사가 도의에 맞지 않아 원한을 파생시키고 이러한 원한이 삼계에 누적되어 현실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인과적 구조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원한과 보복은 역사상에서 순환적 인과관계를 형성했고 그 결과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극투쟁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증산은 진정한 화평의 세계는 상호간의 갈등과 원한 발생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했던 신명계와 인간계의 원한까지도 해소시키는 적극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한에 관한 증산의 이와같은 해석은 조선조 말엽의 각종 민란이나 동학혁명에서와 같은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개혁 측면의 의미와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증산의 이와같은 종교적 해석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원시반본(原始返本) 사상으로 귀일한다. 즉 원의 시초인 당요(唐堯)의 단주신명의 한을 해원함으로써 모든 인간과 신명들의 한을 해소시켜 상생이라는 평화공존의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원한에 대한 의미를 종교교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체계화시키고 있음은 증산의 사상체계가 전통적인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의 기저와 유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노길명: 309-310).

사회적 긴장과 해체상황의 원인을 원한관계로 해석하는 증산은 이러한 사회를 재통합시키기 위하여 모든 원한을 풀어 없애는 일이 가능할 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며 이러한 새 세상에서 비로소 인간 또한 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법사에 마음을 바로하라...”(교법 3장 24절)

전경상의 위와 같은 언급에서 증산은 구체적인 해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라는 구절은 인간 주체의 자유의지에 따라 마음껏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생겼던 원한이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이다(김 탁: 81).

그러나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태도에서 기인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의 혼재는 인류를 파멸위기로 몰아넣기도 한다. 증산은 이러한 혼란상을 난법이라 규정하고 자유방임주의의 극복을 통해서 진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진법구현의 방법론으로서의 개벽사상은 대순진리의 세계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원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순진리에 있어서 개벽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벽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선천, 그리고 그 이후를 후천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벽사상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우게 되었고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결과적으로 진멸지경에 처하게 된 선천의 부정적 실상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산은 기존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독자적인 방법과 과정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증산이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이것이 곧 천지공사라고 언명하듯 개벽사상은 1901년 부터 1909년까지 실행된 천지공사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즉 진멸지경에 처한 삼계를 바로잡고자 행한 9년간의 천지공사가 바로 그 성격에 있어서 부정적인 선천의 실상을 바로잡아 후천선경을 열기 위한 개벽공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벽의 정의를 전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전경 예시30절).

이때의 서신은 생명을 관장하고 결실을 이룩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증산의 위격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후천개벽은 가을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만물이 결실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을 이루는 주체자는 증산이시다.

이때의 개벽은 단순히 선·후천을 구분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후천을 연결하는 교량과 같은 매개의 역할을 하며 이는 동양 전래의 순환론적 운세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벽을 통해본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세계관은 선천시대를 생장시대(生長時代)로, 후천시대를 염장시대(斂藏時代)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벽은 선천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의 새로운 정비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벽이란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역사의 대변혁’, 즉 우주와 인간역사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시간상의 변화로 파악하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희망적 미래관을 제시하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개벽은 증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극이 인간계를 지배함에 의해 세상에 원한이 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세상에 재화가 생겨났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전경 공사 3장 5절).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後天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전경 예시17절).

이러한 내용에 입각할 때 개벽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과

신명의 원을 푸는 일, 다시말하면 ‘해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원의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상극이 완전히 해소된 선경건설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증산께서 악을 악으로 씻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서도 그 필연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원을 바탕으로 하여 신명을 조화하는 작업은 상제께서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므로 귀신과 더불어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천지의 질서를 바로잡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 완벽히 마무리된 상태가 곧 천지가 개혁된 상태인 것이다.

신명을 조화하는 일을 통하여 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9년간의 천지공사를 행하셨다.

이러한 상제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원시반본이라는 개혁의 방향성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혁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전경 행록 4장 17절).

原始는 만유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시반본의 뜻은 만유가 원시라는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생장운동(生長運動)을 하고 그것이 최 절정기에 달하면 성숙을 위한 염장운동(斂藏運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유는 근본으로 반본하게 되다는 것이다.

후천개혁기 즉, 개혁시대의 우주는 성숙의 개혁(시작)을 위해 다시 원시(근본)으로 돌아가는 반본운동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개혁은 선천세계의 문화적 정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개혁의 목적에 새로움의 창조도 있지만 선천의 모든 것을 통합·완성시키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

둘째, 개혁에 앞서 삼계의 대순과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권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데, 이러한 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바로 증산께서 개혁의 주체자 라는 점이며 증산의 의지와 이념이 반영되어 이전에는 없었고 오직 증산이 지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개혁의 독창성이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개혁은 다름 아닌 도수라는 순차적 질서에 따른 것이다.

넷째,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새로움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인간으로 하여금 개혁시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산이 짜 놓은 천지공사 또는 개혁공사라는 체계적인 도수에 더하여 인간의 기국을 키워 개혁되는 천지 또는 신명계와 조화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이 이룩되기 위한 인간의 역할을 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성(聖) 웅(雄)을 겸비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역시 개혁시대를 당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지적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삼계의 주재자인 증산은 세계에 대한 일종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계신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요구되는 것이 ‘개혁’하는 일이다.

증산이 개혁장이라는 신격에서도 나타나는 것 처럼 삼계를 주재하여 천지를 새로이 뜯어고치는 개혁의 주체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러한 증산이 천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인간계에 강세하심은 곧 성에서 속으로의 현현이다. 천지인 삼계를 대순하시어 진멸지경에 처한 선천의 부정적 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속의 세계에 대한 종교적 각성을 통하여 본질로의 회귀라 할 수 있는 원시로의 반본 즉, 성의 회복을 이룩하고자 함이다.

이는 곧 선천과 후천의 교량이 될 수 있는 개혁을 통한 속으로 부터의 성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종교학에서 일컬어 지는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재창조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이라는 재창조의 과정에 인간이 참여함으로써 인간 역시 새롭게 창조됨, 즉 대순진리의 목적에 있어서 인간적 측면의

목적에 해당되는 인간개조를 통한 지상신선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불교에서 일컬어 지는 해탈, 기독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 부분적으로 접목되는 면도 있으나 이러한 이상의 추구를 현실속에서 이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개혁인 것이다.

J.헤센은 종교의 본질에 관한 글(J. 헤센: 304)에서 신의 간접적 계시는 세계창조와 더불어 주어져 있다고 하면서,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그 존재와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서 자기 자신은 계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의 작품은 그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했다. 즉 창조(creatio)는 동시에 현시(manifestatio)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스스로를 개혁장이라 칭하시며, 개혁을 이룩하시는 것은 '원시로의 반본'을 통하여 근원으로 돌아가 그곳을 시작점으로 함아 '새 세상', '새 인간상'을 이룩하시는 일이며 이를 종교학적 의미에서 다시 분석한다면 증산의 본질을 현현(顯現)시키시는 일인 것이다.

대순진리의 세계관은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창조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증산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삼계를 주재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대순진리의 세계관은 기존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과거 중심적 해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가 안고 있는 부정적 측면의 해결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의 긴장과 혼란을 제거하고 후천의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원리로서의 해원사상은 실제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즉 진법(眞法)이 나타나는 희망찬 새 세상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개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를 행한다는 사상이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개념이다.

증산이 상제(上帝)의 권능을 가지고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혁하고 무궁한 선경의 틀을 정하고 재점에 쌓인 신명(神明)과 인간을 구하기 위해 천지공사를 행함으로써 이 공사는 선천의 모든 부정적인 현상세계를 시정하는 종교적 작업의 의미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증산은 이러한 개혁적인 종교 시정의 공사를 주재하면서 개혁의 시대에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전경 교법 2장 56절)

라는 언급에서 인간 개개인의 가치가 천지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개혁의 시대에 새 질서를 창조하고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고 이러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전경 교법 32장 35절) 이란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늘보다 인간 존엄성의 우위를 피력한다(김탁: 130).

아울러 반상(班常)의 계급관계 내지는 남존여비와 같은 기존의 인습을 타파할 때 무시 받고 버려졌던 사람과 땅에 버려졌던 사람과 땅에 새로운 기운이 돌아 상생의 복된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했다.

#### IV.

근대에 있어서 사회 변동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그 종교가 사회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치를 종교 교의체계 내에 함의하고 있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에서 신앙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산의 사상적 체계는 상극과 저항의 이념을 해원과 공사사상에 의하여 화해시켜 공존상생의 길로 질서지어 나간다는 점에서 기성종교의 독선적인 유일절대성을 지양시키는 새로운 세계종교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피폐된 민심 안에서 조선이 세계의 상등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민족의 자존의식을 극대화시킨 점은 근대적 변동과정에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모두가 희망적 구조를 자발적으로 실현하고 노력하여 우리들의 삶안에서 도통진경의 세계를 구축하는 믿음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위에서 해원의 적극적 의지가 구현될 때 후천의 이상적 세계가 구현

되고 아울러

증산의 사상체계가 개혁의 의미에서 보다 깊게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될것이다.

### 〈참고문헌〉

- 전 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진리회 출판부.  
강재언. 한국의 개화 사상. 비봉출판사.  
이이화.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한길사.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가톨릭신문사.  
노길명. 한국 근대사회변동과 증산종교 운동. 95' 한.일 종교학술 심포지움.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집문당.  
김홍철. 한국 신흥종교사상의 연구.  
윤재근. 한국 근대사회변동과 대순사상. 97' 한.일 종교 학술심포지움. 대진대 대순  
사상 학술원.  
김 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박사학위 논문).  
조명기.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우석.  
J.헤센. 종교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광사.